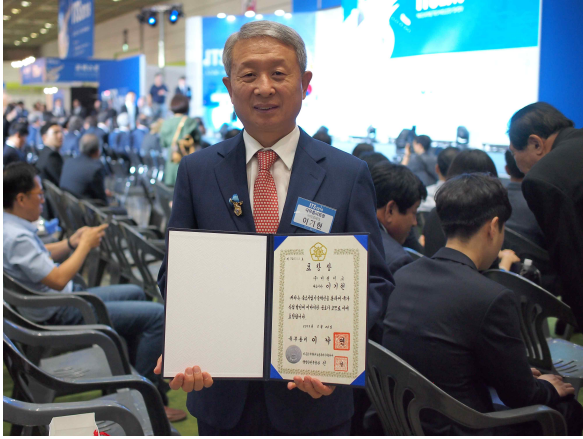


축 총동창회장(이기현 대표) 국무총리상 수상

#미성테크 #국무총리상 #백라이트 유닛 특허



8월 26일, 경희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기현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미성테크는 연 2000억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자동차 백라이트 센서인 백라이트 유닛의 특허를 획득하였다. 미성테크가 보유한 독자적 센서 기술은 가격과 기술면에서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며 5년 내에 500억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 미성테크는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삼성르노에 10월부터 납품 예정이며, 현대·기아는 내년 1년 선행 적용하여 2021년부터 신차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경희고등학교 축구부, 리그 무패행진 이어가다

#중부리그 #무패 #최강경희

지난 4일(수), 효창운동장에서 서울 경희고와 대동세무고등학교가 맞붙었다. 결과는 경희고의 2:0 승리로 끝났다. 경희고는 전반 내내 경기를 주도 했지만 대동세무고 선수들의 거친 파울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후반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너킥 상황에서 장성록 선수의 멋진 헤더골로 경희고가 앞서 나갔다. 그리고 경희고의 연속된 공격으로 후반 막바지에 이수환 선수의 썸볼로 2:0으로 승리하였다. 이 경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서울 중부지역의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지난 25일(수), 남양주 에코랜드 경기장에서 서울 대한 FC18과 경희고의 경기가 펼쳐졌다. 경희고는 다음주 전국체전 서울 대표로 경기 대표인 매탄고와 경기를 앞두고 있어, 2학년 학생들로 선발을 꾸렸다. 경기 전반 경희고는 주도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경희고는 3학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다. 결국 경희고는 후반에만 3골을 넣으면서 서울 중부리그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20107 박승훈-

비만예방교육

#비만은 #만병의 #근원

지난 11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비만에 대해 알고 건강 체중을 위한 실천 지침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건강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초·중·고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세계인구의 1/3인 27억 명이 비만이며, 미국·영국 등 많은 나라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의 식이섬유로 균형 잡힌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예방 교육으로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04 김민성-

Peace BAR Festival

#지구온난화 #세계평화 #말보다 실천



출처: 경희대학교

9월18일부터 20일까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제 38회 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포럼 및 전시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피터와담스 케인브릿지 교수,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장 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국무총리,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이 주요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학생·일반인 등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위 패널들의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연설과 함께 전시회, 미래세대의 전언 영상 상영, 캔버스모듈 설치 미술, 기념 버스킹 등이 진행되었다.



Festival 첫째 날, 교지편집기자반 부원들이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 'Save Earth, Make Future'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 및 대담이 펼쳐졌는데, 여기서 피터와담스 교수는 이산화탄소와 빙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서로 관련지어 연설했다. 피터와담스 교수는 현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그 영향,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뜻깊은 연설을 하였다.



평화의 전당 2층부터는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건물 한 층, 한 층 올라가며 작품을 감상하였고, 작품 감상을 마친 뒤 경희대학교 청운관으로 이동하여 설치 미술을 감상하고, 캔버스에 '평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을 그리는 행사에도 참여해보며 세계 평화의 날을 몸과 마음으로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몇 백 명의 소수들만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몇 백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보호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

-20808 김준원, 20304 김근석-

마음으로 이해하는 흡연예방교육 뮤지컬 : 네 목소리로(Reload)

#NO담배! #뮤지컬로 배우는 #금연예방



지난 25일, 창작그룹<가족> 뮤지컬팀을 초청하여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뮤지컬이 진행되었다. 뮤지컬 '네 목소리로(Reload)'는 술, 담배 사건에 휩쓸려서 활동중지를 당한 걸 그룹 아이돌 릴리, 부상으로 꿈을 이루지 못한 가수 지망생 가오나, 영동 발랄 배우 지망생 지지송연, 그리고 미래의 영화감독 박찬욱까지 개성 있는 4명의 아이들이 마동석 선생님의 지휘 아래 모여 금연 홍보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존의 틀에 박힌 예방교육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춤을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연령대에 맞춘 작품 구성으로 흡연이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하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또한 뮤지컬 중간 중간 학생들이 무대 위에 올라 직접 참여하며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갔는데, 무대 위에 오른 경희고 학생들은 상품이 걸린 어려운 퀴즈를 당연하다는 듯이 맞춰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특별했던 교육을 통해 단지 머리모만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 마음 속 깊이 흡연의 심각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10603 김도현-

교직원 응급처치 연수(심폐소생술)

#CPR #자동제세동기



중간고사 첫째 날이었던 30일,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가 시행되었다. 심폐소생술은 질병으로 인한 심정지보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정지에 더 많이 쓰인다고 한다.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심정지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대신해 뇌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응급처치 기술로, 심정지가 발생한 뒤 4~6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 만약 환자를 발견한다면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을 시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 한다. 양손을 각지 긴 후 손꿈치를 흉골 하부 절반 부위에 위치시켜 5cm 이상 들어가게끔 120회/1분의 속도로 압박한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압박해야 하기에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기술이므로, 주변 사람들과 교대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함께 교육받았는데, 전기충격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을 통해 경희고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이전보다 훨씬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란 학생들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지도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 날의 연수는 그 어떤 연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11 손예준-

화재대피훈련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질서유지



9월 9일 6교시, 동대문소방서·경희중학교와의 합동 화재 대피훈련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6교시 수업 중 비상벨이 울리자 모두 선생님의 통솔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하였다. 운동장에 모든 학생들이 모이자 소방차를 타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오셔서 물대포를 이용하여 화재 대피훈련을 계속했다. 학생 몇 명이 나가 물대포를 직접 쏘아보기도 하였다. 실제로 학교와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화재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피훈련은 형식상 하는 게 아닌 더 큰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른 교과과목보다 더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더운 날씨임에도 침착하게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니 모두들 그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였다. 화재대피 훈련 이외에도 각종 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401 강수영-

우수 동아리를 취재하라!!!

#모의재판 #법조인이 되는 그날까지



기 자

: 안녕하세요. 저는 교지 편집기자반에서 '법과 인권 동아리'를 취재하러 온 김정현입니다.

조석우, 정원석

: 네, 안녕하세요.

기 자: 먼저 법과 인권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조석우: 저희 법과 인권 동아리는 1학년과 2학년이 하는 활동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법 제도를 만드는 활동을 하며 법 지식을 함양하고, 2학년 학생들은 모의재판 대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합니다.

기 자: 그렇군요. 법과 인권 동아리의 학생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이런 활동에 임하는 건가요?

정원석: 법과 인권 동아리 학생들은 대부분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1학년 친구들은 현행 로스쿨 체제와 같이 법에 관한 기본 개념에 대해 배우고, 2학년 친구들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스스로 대본을 써봄으로써 법조인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 학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 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법과 인권 동아리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듣고 싶습니다.

조석우: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법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동아리가 활기찼습니다.

정원석: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학생들과 함께해서 저도 덩달아 같이 열심히 한 것 같고 항상 옆에서 의욕을 북돋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독려해주시는 류나을 선생님 덕분에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 없이 단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 자: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208 김정현-

만든사람들 경희고등학교 교지편집·기자반

- 김도현, 박승훈, 손예준, 송창학, 김민성, 김정현,
김근석, 박건우, 강수영, 김준원, 박서진